

자연에 묻힌 30년 세월, 멈추지 않는 ‘찰나의 순간’ 증언

안판중 작가, 사진·수필집 출판기념회...ACC디자인호텔 갤러리 30일까지

아날로그 감성으로 녹여낸 情...프레임에 담은 ‘몽환 미학’
풍경 너머에서 만난 이야기, 땀·열정에 새겨진 ‘삶의 흔적’



찰나의 순간은 시간이 흐르면 한 편의 이야기가 된다. 누군가에게는 무심히 지나칠 일상의 한 장면도 오래 들여다 보면 삶을 돌아보게 하는 시간의 흔적으로 남는다.

그 장면은 예술로 승화돼 저마다 이야기를 건네고, 그 안에 깃든 삶의 열정을 고스란히 전하는 매개체가 된다.

‘직관과 통찰의 눈’으로 ‘미(美)’를 승화시키며, 사진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기성 원로 사진작가 안판중(사진)의 소중한 기록물을 한자리에 만날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됐다.

안 작가의 지난 30여년의 흔적을 담은 사진·수필집 출판기념회가 2일 광주 동구 금남로 ACC 디자인호텔 1층 갤러리에서 열린다.

작가의 따뜻한 감정이 듬뿍 녹아있는 이번 전시는 새벽의 안개처럼 아무도 건지 않았을 것 같은 몽환적 신비감을 찾아 포착한 작품 40점을 선보인다.

작가는 자연 속에서 마주한 순간들을 섬세하

게 관찰하며, 일기처럼 사각의 틀 속에 기록했다. 카메라 렌즈에 투영된 어떤 것은 기쁨이고, 어떤 것은 슬픔이며, 어떤 것은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는 아주 작은 순간이었다. 시간이 지나며 희미해지는 기억의 결을 다시금 생생한 시각적 언어로 파노라마처럼 풀어냈다.

그의 작품은 고요 속에서 마주한 바다 풍경과 우리네 삶의 모양이 맞닿아 있다. 해무를 머금고 붉게 떠오르는 태양, 한때 만선의 꿈을 안았던 갯가의 폐선, 힘찬 날갯짓을 하는 갈매기, 뱀배 타고 이동하는 아낙 등을 통해 자연의 존재와 삶의 의미를 성찰하는 작품세계를 그려낸다.

이처럼 푸른색이 찬란한 바다와 자연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둔 그의 철학은, 사진에 대해 ‘멈추지 않는 시간을 멈추게 하는 타임캡슐’이자 ‘찰나의 흔적을 그대로 증언하는 빛의 거울’로 여기는 굳건한 믿음에서 비롯된다.

특히 이번 전시는 작가의 출발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땀과 열정으로 가득한 그의 인생을 담담히 써 내려간 수필집 ‘삶의 흔적’을 함께 선보인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돌이켜 보면, 새벽 짙은 안개 속에서의 역주행과 갯벌에 두 다리가 빠져 움직이지 못한 아찔한



‘해무를 머금은 장엄한 일출’

순간에도 카메라를 든 위풍당당한 안 작가는 오랜 세월만큼이나 자연 속으로 거침없이 걸어 들어갔다. 카메라와 조화를 이루며 서서히 대자연의 품으로 스며들었고, 그 위대한 감흥은 서서히 사각의 프레임에 작품으로 남았다.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에, 자연을 찾아 새벽 발걸음을 재촉한 안 작가는 AI 시대에 디지털 기술의 발달 속에서도 아날로그를 고집하며 진정성 있는 정통 사진가의 길을 걷고 있다.

그래서인지 그의 발자취와 손길을 거친 작품은 보는 이로 하여금 더욱 잔잔한 감동을 안겨 준다.

안 작가는 무심코 지나치는 소재를 찾아내 예

술로 승화시키고, 우리 삶과 역사의 현장을 채워 넣는 다큐멘터리 사진도 꾸준히 기록하고 있다.

어민들의 진솔한 삶의 현장인 무안군 해제면 도리포와 보성군 벌교면 대포리 등 남도의 어촌 사진작업을 마무리했고, 10여년을 고창과 화순을 오가며 고인돌에 담긴 인류의 영혼을 더듬는 사진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 운영자문위원을 역임한 안 작가는 다수의 개인전을 비롯해 한·일, 6대광역시, 영·호남교류전 등의 단체전, 전남사진·미술대전 초대전 등 수많은 전시를 열고 참여했다. 또 대한민국사진대전·광주매일신문전 국사진대전 등의 운영위원을 역임했으며 광주



‘푸른색 바다위의 갈매기’

와 전남 사진·미술대전, 무등미술대전, 대한민국 정수대전 초대작가로서 각종 사진대전 심사위원과 심사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사진인 양성과 사진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안판중 작가는 “지난 30여년을 오로지 사진 한 것을 위해 장소 불문하고 여기저기를 헤맸지만, 사진을 통해 인생의 깊이를 즐긴다”며 “렌즈에 담아낸 한 장의 사진이 인간의 기억력보다 더 아름다운 까닭에 자연 속에서 삶의 의미를 그려보고자 기획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시 오프닝 행사는 2일 오후 5시 ACC 디자인호텔 1층 갤러리에서 열리며, 이번 전시는 오는 30일까지 진행된다.

/오복기자

‘전통 잇고 신명 나누다’

‘2026 무등올림픽축제’...3-4일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 일대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은 오는 3일~4일 광주 전통문화관 일대에서 ‘2026 무등올림픽축제’를 개최한다.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무등올림픽축제는 무형유산 공연과 전시, 체험, 문화장터가 어우러진 전통문화관의 대표 축제다.

올해 축제의 주제는 ‘전통을 잇고 신명을 나누다’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그동안 따로 열리던 무형유산 공개행사를 축제 기간에 한데 모으고, 작고한 무형유산 보유자와 보유단체를 기리는 ‘2026 무형유산 추모제전’을 새롭게 마련했다.

공연·전시·체험을 전통문화관에 모아 관람 동선을 단순하게 하고, 윤림동 미술관과 무등산국립공원탐방센터, 무등산권세계지질공원

센터까지 이어지는 산책형 프로그램으로 축제의 무대를 넓혔다.

첫날인 3일 오전 솥을대문 앞에서 사전공연 ‘몸짓으로 잇는 전통’이 축제의 문을 연다. 오후에는 너털마당에서 ‘용전들노래’ 공개행사가 열리고 토요일상설공연과 연계한 ‘광주영산재’ 공개행사도 이어진다. 2014년 예능보유단체로 지정된 광주전통불교영산회가 범음범패 소리 분야 명인 해령스님, 작법분야 명인 호산스님과 함께 신중작법, 대령·관육, 상주권공, 관음시식을 선보인다.

둘째 날인 4일 광산농악보존회의 길놀이와 솥을대문 앞에서 흥겨운 풍물 가락으로 하루를 열고, 너털마당에서 ‘2026 무형유산 추모제전’이 거행된다. 작품전시실 앞마당에서 ‘2026



지난해 열린 무등올림픽축제 공연 모습

무형유산 공개행사 개막식’을 열고, 특별기획전을 선보인다.

축제의 대미는 ‘2026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형유산 예능보유자 합동공연’이 장식한다.

축제기간 중 전시실 앞마당에서는 새전통원화놀이연구소가 운영하는 어린이 체험 ‘호랑이 탈 만들기’와 ‘호랑이 놀이터’, ‘소원지 쓰기’가 마련된다. 모든 프로그램은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오복기자

‘빛이 닿는 곳...작은 생명 바라보는 시선’

조근호 개인전, 8일까지 리아트센터

익숙했던 존재 앞에서 서로 다른 생명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이 있다. 시선이 움직이고 있는 방향을 따라 작품과 글, 빛과 시간, 공간의 장면들을 하나씩 연결해 가는 전시를 보며 관람객은 새로운 감각을 느끼고 생명의 힘에 빨려든다.

리아트센터는 오는 8일까지 조근호 작가의 31번째 개인전이자 2026 기획초대전 ‘햇살 좋은 날’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완성된 하나의 작품세계를 정리하는 전시라기보다 이미 구축된 세계 안에서 새로운 감각이 발생하고, 작가의 시선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을 포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작은 생명을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이 있다. 조근호의 작업에서 사라



‘햇살 좋은 날’

져가는 것을 붙잡는 일이 ‘기억’이었다면, 나와 다른 존재가 살아온 시간을 인정하는 것은 ‘존중’이다. 이번 전시에서 그 시선은 기억과 존중을 지나 존재가 살아왔고 사라지며 다시 다른 존재와 관계 맺는 생명의 힘 자체를 바라보는 ‘잔미’로 이동해 작고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존재 안에 축적된 시간과 흔적, 생성과 소멸의 과정을 가까이 들여다본다.

/오복기자

광주 안의 유일한

천환경 수목장

☑아름다운 자연

☑365일 관리

☑가족구성 가능

☑사용기한 없음

☑전문 이장

☑광주시청 20분

수목장 · 묘지 이장 · 장례

상담: 062-449-4446

광주 수목장 블로그 바로가기

CMYK